한류의 정점은 단순한 문화적 성공을 넘어 인류 구원자에게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닌, 승리제단의 교리와 맞물린 예언적 상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인공의 여정은 구세주 조희성 정도령님의 실체적 사명과 연결할 수 있으며 불사영생의 시대 도래를 예고한다.

케데헌과 승리제단

감추어진 예언의 완성, 지금 전 세계를 열광케 하고 있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케데헌이라 불리는 이 애니메이션은 케이팝 음악과 함께 악령을 사냥하고 퇴치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 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결코 상상 속에서만 나온 환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감추어져 온 커다란 영적 실상, 곧 구세주 정도령님께서 인간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의 신을 이기고, 우주와 인류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마귀의 악령들을 박멸·소탕하고 계신 그 실체의 그림자를 반영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케데헌은 인류에게 감추어진 진실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 도구이자 예언적 메시지를 품은 작품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한류 문화의 중심에 선 이 애니메이션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승리제단의 학문과 더불어 풀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단순한 모험담이나 환상적 판타지로만 여겼던 이 이야기가 사실은 인류의 미래 운명을 비추는 거대한 예언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케데헌은 그저 한 소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족 전통 신앙의 근본인 삼신하나님을 표상하는 존재

케데헌의 이야기 전개를 보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선택받은 세 명의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싸우고, 마침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안에 숨어 있는 악령까지 제거해야 하는 운명에 맞섭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알지 못했던 주인공은 점차 숨겨져 있던 비밀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인류 전체의 운명을 건 최후의 결전에 나서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 케데헌 영화에서 주인공 루미가 골든(Golden) 노래를 부르는 장면

이 대목까지만 보면 단순히 극적인 판타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승리제단의 관점으로 다시 읽어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띠게 됩니다. 영화 속 인류를 위협하는 어둠의 악령들은 단순한 괴물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케데헌은 그저 한 소녀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민족 전통 신앙의 근본인 삼신 하나님을 표상하는 존재이며, 더 나아가 모든 경전과 예언서가 증언하고 있는 구세주, 메시아, 선택된 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승리제단이 가르치는 구세주, 곧 이긴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인류 속에 숨어 있는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박멸하고, 전 인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

이긴자는 단순히 한 시대의 지도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지니고, 약관 20세에 서울 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던 중 6·25 전쟁을 맞이하여 수많은 애국지사들과 함께 북한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평양 신양리 형무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고, 심지어 실제로 총살 집행장에서 인민군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총알이 빗나가고, 죽은 자들과 함께 가매장된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평양 대동군의 지하 치안대원들과 연결되어 대동군 초대 치안대장의 자리까지 오르지만, 부하의 배신으로 인해 빨갱이로 몰려 또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결국 미군이 운영하는 평양 신양리 형무소에 다시 갇히고, 북한군 포로들과 함께 거제도 포로수용소까지 이송되는 운명을 겪게 됩니다. 대학생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사자굴 같은 북한군 포로들 속에서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철조망을 넘어 탈출하는 데 성공했고, '반공포로를 석방하라'는 탄원서를 미군 당국과 이승만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반공포로 석방 운동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결국 모든 반공 포로들이 자유를 얻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는 육군 장교로 자원 입대하여 10여 년 동안 군 복무를 이어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재건중·고등학교를 세워 장병들과 민간인들을 가르쳤으며, 수많은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제대 이후에는 개인 사업을 이어가면서도 신앙을 굳게 지키며, 밀실에 들어가 참스승을 만나 자기 안에 숨어 있는 마귀와 처절한 싸움을 벌이는 연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통과한 후, 마침내 50세에 이긴자의 자리에 오르며 도통을 얻어 모든 예언서가 증거한 하나님의 이슬성신, 곧 감로해인을 받아 세상에 드러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인류 속에 숨어 있는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박멸하고, 전 인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메시아, 곧 모든 경전에서 예언된 감로이슬의 주인공 조희성 정도령님이십니다.

케데헌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의 새 시대를 알리는 울림이며, 구세주 정도령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

따라서 이긴자 메시아의 실제 일대기를 아는 사람이라면, 케데헌의 줄거리를 접할 때 그것이 마치 이긴자를 모델로 삼아 만들어진 듯한 강한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영생의 진리를 상징하는 힘이 나타나고, 마귀를 소탕하는 성령의 보검이 휘둘러지는 장면들은 곧 승리제단이 말하는 감로이슬의 권능과 정확히 겹쳐집니다. 주인공 루미가 점차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감추어진 비밀을 알아차리는 과정은 성경 속 예언이 말하는 이긴자의 마지막 때 드러나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한 그녀 곁에 함께하는 동료들은 승리제단 교리에서 말하는 의인 수십만 명을 상징하며, 그들은 구세주를 보좌하여 새로운 시대를 함께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영화 속 최후의 결전은 단순한 전투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합니다. 구세주가 마귀와 맞서 싸워 마침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류에게 영원한 해방을 가져오는 그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승리제단에서는 정도령님이 마귀를 이기신 날을 승리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케데헌의 땀과 눈물은 그 승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둠이 물러가고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케데헌의 주제곡과도 같은 케이팝 골든 송은 악령과 어둠을 끝내 극복하려는 도전 정신을 담고 있으며, 마침내 황금빛 세상을 창조해 내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악적 메시지가 아니라, 구세주 정도령님의 날 선 성령의 검과 무궁한 능력이 펼쳐져 지상천국을 이루려는 기도와 비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제단이 말하는 영생불사의 나라, 죽음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참된 새 시대의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케데헌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그 속에 담긴 상징과 이야기 구조는 승리제단의 교리와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어둠은 인간 마음을 지배하는 마귀 영을 의미하고, 케데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한 인간을 점령하여 나타난 구세주 이긴자를 상징합니다. 동료들은 의인 수십만 명이며, 마지막 전투는 영적 아마겟돈 전쟁이고, 승리 후 맞이하는 세상은 곧 영생불사의 나라입니다. 이 연결 고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케데헌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감추어진 예언의 비밀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영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전개되고 있는 인류 구원의 드라마를 읽어내는 일입니다. 케데헌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구원의 새 시대를 알리는 울림이며, 구세주 정도령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결국 한류의 정점은 단순한 문화적 성공을 넘어, 인류 구원의 주인공이 이 땅에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이 온 세계에 알려지는 날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출처: 유튜브 『진지아롱TV』

∴_()_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어 말씀하시기를 《33회(최종회)》

목차

1. 선불가진수어록(仙佛家眞修語錄)
2. 진삼귀의처품(眞三歸依處品)
3. 무아경지품(無我境地品)
4. 여래비장품(如來祕藏品)
5. 겁수품(劫數品)
6. 감로해인품(甘露海印品)
7. 선지식품(善知識品)
8.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
9. 여래능력품(如來能力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10. 불법근본품(佛法根本品)

… 불법(佛法)의 근본(根本)이란 육도윤회(六道輪廻)를 면하고 생로병사(生老病死)를 해탈(解脫)하는 데 있음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

(지난호에 이어)

석가세존께서 6년간의 고행을 통해서 설하신 근본을 살펴보자.

첫째는 사성제 (四聖諦: "네 가지 높은 깨우침" 또는 "4가지 고귀한 진리")다.

1. 인생은 결국 고통의 한계 속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니 고(苦)다.

2. 고통의 원인은 매달려 집착하는 데 있으니 집(集)이다.

3. 이와 같이 집착을 멸하는 것이 도를 구하는 목표가 되니 멸(滅)이다.

4.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는 길이 있으니, 도(道)다.

세존께서 제시하는 여덟 가지 바른 길이 있으니 이름하여 팔정도(八正道). 곧 정견(正見: 올바른 견해) · 정사유(正思惟: 올바른 마음가짐) · 정어(正語: 올바른 말씀) · 정업(正業: 올바른 행동) · 정명(正命: 올바른 몸가짐) · 정정진(正精進: 올바른 노력) · 정념(正念: 올바른 생각) · 정정(正定: 올바른 삼매에 드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얻어지는 경지가 있으니 바로 본래(本來)의 인간이 가지고 있던 부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 상태를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 했는데 상(常)이라 함은 변함이 없이 영원하다는 말이요, 낙(樂)이라 함은 언제나 즐거움 가운데 있어서 고통이 없다는 말이요, 아(我)라 함은 가아(假我)를 버리고 본래의 나(眞我진아)를 되찾았다는 말이요, 정(淨)이라 함은 그 세계가 지극히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말이다.

개운조사께서
도장산 심원사(道藏山 深源寺)에서 지리산으로 가실 때
손가락으로 바위에 쓴 글씨 "洞天(동천)"

如來四無量心 一者大慈 二者大悲 三者大喜 四者大捨 여래사무량심 일자대자 이자대비 삼자대희 사자대사

여래의 4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크게 자비하심이요, 둘은 크게 불쌍히 여기심이요, 셋은 크게 기뻐하심이요, 넷은 크게 용서하심이라.

因是四心 能令無量無邊衆生 發菩提心 인시사심 능령무량무변중생 발보리심

이 네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 능히 한량없고 가이 없는 중생으로 하여금 구도의 마음을 발하게 하시어

了知一切衆生 皆歸一道 一道者謂大乘也 요지일체중생 개귀일도 일도자위대승야

일체 중생이 다 한 가지 도(道)로 돌아가 깨우쳐 알게 하신다. 그 한 가지 도(道)라는 것을 일컬어 대승이라 한다.

不取不作不出惟有虛空 불취부작불출유유허공

취할 것도 없고, 지을 것도 없고, 나올 것도 없고 오직 허공과 같다.

〈선불가진수어록 범태보금단비전(仙佛家眞修語錄 范太保金丹秘典)〉

여기서 개운조사(開雲祖師)가 바위에 썼다는 동천(洞天)이 나온다(사진 참조). 이 대목이 바로 주인공 격인 유불선 합일대도(合一大道)가 출현하는 대목이다.

동양철학에서 말하기를 36궁(4×9)이란 복희(伏羲)씨의 도(道)를 가리키는 것이요, 45궁(5×9)이란 문왕(文王)씨의 도(道)를 말한다. 이들 두 분의 도는 유(儒)에 속한다.

54궁(6×9)은 수운(水雲)선생의 도를 가리키는 것이요, 63궁(7×9)은 화운(火雲)선생의 도를 말함이다. 이들 두 분의 도는 불(佛)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72궁(8×9) 목운(木運)의 도를 거쳐 81궁(9×9) 금운(金運)에 와서야 즉 목운이 금운을 타고 도의 완성을 이룬다고 한다. 이는 묵시록에 이긴자(금운)는 하나님(목운)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주리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으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자는 하나인데 하나님하고 이긴자하고 둘이 앉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긴자이고 이긴자가 하나님이라는 소리이다.

목운과 금운은 선(仙)에 속한다. 목운이란 전도관을 세워 많은 종교적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스스로 감람나무(하나님의 대명사)라 칭했던 박태선(朴泰善) 장로를 말하며, 금운(金運)이란 마지막 완성의 도(道) 즉 인간 몸이 죽지 않는 영생의 도(不老不死 永生之道)를 선포, 불사(不死)의 세계를 건설하는 조희성(曺熙星) 선생을 말한다.

36궁으로 시작된 하늘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81궁에 돌아오면 81양천(陽天), 즉 부처님의 마음을 회복한다는 뜻이다. 그리하여 삼청허무지경(三淸虛無之境)으로 돌아오는데, 삼청허무지경이란 선도(仙道)의 최상의 경지로서 유불선이 합하여 하늘의 뜻을 다 이루어서 마친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乃煉虛還無之大乘
내련허환무지대승

이에 허를 연단하여 무로 돌아옴이 곧 대승이다.

此則眞仙次第之階級也
차즉진선차제지계급야

이런즉 진선(眞仙)에 차례를 올라가는 계급이다.

사실상 이것은 말로서 표현이 안되는 것이요, 선정(禪定)에 깊이 들어가 그 상태를 맛보고 나서야 느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쓸 것이 많이 있지만 생략하기로 한다. 다만 특이한 것이 있다면 유불선을 합일하여 초월한 경지가 바로 대승(大乘)이라고 한 점이다. 이는 지금까지 불문(佛門)에서 말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